

국제 청소년 교류 농촌 선언

~사람은 서로 교류하며 성장한다~

사계절 각기 풍부한 표정을 보여주는 나가노 현의 농촌은 일본의 보물입니다.

저희 나가노 현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농촌체험」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나 문화 차이를 넘어, 있는 그대로의 농촌 생활을 함께 하며 교류·연구하여 만남의 소중함·식재의 소중함·자연의 소중함을 서로 이해해나갑니다. 그리고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을 모두가 지키며 국내는 물론 여러 나라나 지역의 젊은이들의 교류의 장이 되는「세계 제일의 청소년 교류 농촌 만들기」를 목표로 여기에 선언합니다.

- 세계 청소년들과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를 촉진하는「만남의 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촌·관광사업자·행정이 하나가 되어 국내외 교육여행의 수용이나 해외 학교와의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농촌의 치유체험을 넣은 뉴 투어리즘을 촉진하여 농촌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겠습니다.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며 풍부한 자연과 경관, 풍속관습을 지키며 참다운 풍요를 실감할 수 있는 농촌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 건강장수 일본 제일의 생활을 계속하여, 건강생활을 차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 「국제 청소년 교류 농촌 선언」을 널리 알리고 행동하며, 동의하는 국가·지역과의 친교를 쌓아가겠습니다.

2011년 10월 8일

나가노현지사 阿部 守一
찬동자일동



살아가는 힘이 될 진정한 체험·교류를 제공합니다



생활체험

있는 그대로의 농촌 일상생활을 체험합니다.



자연체험

산과 강에서 자연을 접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농촌체험

농작업을 체험하고 농촌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학교교류

같은 세대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관광청장관으로부터의 메시지입니다.

「국제청소년교류농촌선언」

세계각국의 지역 젊은이들에게 교류의 장이 되는
세계 제일의 청소년교류 농촌만들기
나가노현이 주도하는 이 획기적인 취지에
마음속으로부터 응원하겠습니다!

관광청장관 미조하타 히로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국제청소년교류농촌선언」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또, 본선언의 정리에 있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일본은 대지진에 의한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본을 다시 활기차게 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 일본 전체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과 시정촌, 농촌이 연계하여 농촌체험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나가노현의 본선언은, 실로 시기적절한 획기적인 것으로 각 지역의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을 무대로

한 대안은 학습여행 수용과 뉴 투어리즘의 개발 등에 의해 앞으로의 관광객 유치나 농촌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국제삼림의 해이기도 하여 삼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의 교류를 통해 세계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소중함·식재의 소중함·자연의 소중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요. 그리고 꼭 나가노현에서 세계를 이끌어 갈 국제인을 많이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의 있는 기획을
마음속으로부터 응원하겠습니다!!

관광청장관 溝畑 宏

